

# 고병원성 AI 산란계 확산에 '긴장'

### 관계부처·지자체 중수본 회의... 10건 중 전북 7건 집중·가금 농가 방역 수칙 준수

정부가 올 겨울 가금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북지역 산란계 농장 등에 집중되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14일 관계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어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전남 고흥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13일 기준 전국에서 총 10건의 확진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전북 김제와 익산 완주 등 3개 시군에서 산란계 등 7건이 발생했다.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4곳과 전남 영암 육용 오리농장에서도 H5형 항원이 검출돼 정밀검사 중이다.

2016년 겨울 H5N6형과 H5N8형이 동시에 전파하면서 6개월 동안 383건이 발생해 3787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큰 피해가 있었다. 이번 겨울에도 가금농장과 야생 조류에서 2개 혈청형이 동시에 검출돼 위험도가 높은 엄중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수본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과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일

사이동종지 명령을 14일 오후 10시까지 발령했다. 이 기간 농장·차량·축산시설 등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전북 김제, 익산 완주 등 3개 시군에 3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 13곳에 대해서는 입구에 통제 초소를 설치,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 주변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농장 35곳은 농장별 전담관을 지정, 매일 농장을 직접 방문해 소독과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가금 계열사가 계열농장에 대해 매주 방역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관한 시도에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는 계열사

와 계열농장의 방역관리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농장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이 증가해 계란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산란계 밀집단지 관리뿐 아니라 사가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산란계 농장 등까지 관리에 만전을 해야 한다"며 "가금 농가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미흡 농가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북농협은 14일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칭찬받는 전북농협 만들기를 위해 실천했던 과제들을 최종 점검하면서 농축산물 유통혁신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 칭찬받는 전북농협 만들기

### 과제들 최종 점검... 농축산물 유통혁신 기여 다짐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14일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칭찬받는 전북농협 만들기를 위해 실천했던 과제들을 최종 점검하면서 농축산물 유통혁신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추진 결의대회는 김영일 본부장을 비롯해 지역본부 경제사업 전 직원이 참석해 올해 성과를 공유하고 각 단과 개인별 핵심 사업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지며 2024년도 더 칭찬받는 전북농협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올해 전북농협의 사업량은 11월 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한 3조 178억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연합사업은 FTA 대비 과수경쟁

력 전국 1위, 광역브랜드 예담채는 7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했고 양곡사업은 2023년 쌀 적정 생산 추진 전국 1위를 달성해 쌀 산업 체질개선에 기여했다.

축산분야에서는 전북도와 협업체종이 없는 스마트 가축사장을 5개소에 본격 도입하였고 광역브랜드 참여는 전국 최초 우수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11년 연속 국가명품인증 획득했다.

또한, 경제사업 5UP 시범사업 18개 과제를 발굴해 75개소에 813백만원을 지원하여 유통대변화의 초석을 고향사랑 답례품 홍보관을 리뉴얼하고 고흥사랑기부체 홍보에도 앞장섰다. /김육기 기자

## 스마트공장 보급 통한 제조현장 디지털 전환

### 전북중기청, 내년 2180억원 규모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웅)은 총 2,180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하는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고는 지난 9월 발표한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통해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 제조기업의 현장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스마트공장 구축에 총 1,621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한다.

2024년도부터는 제조현장에서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유도한다. /김육기 기자

## 전기안전공사, 'ESS 온라인 무정전 정기검사' 시행 예고

### 안전검사 '사람중심' 서 '디지털체계' 로 전환... ESS 설비 안전 총력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2024년 1월 부터 ESS(Energy Storage System)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운영정보 기반의 ESS 온라인 무정전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ESS 통합관리시스템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ESS의 실시간 안전관리 및 효율적 안전검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구축을 완료하고 전국 ESS 사업장을 연계하여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최근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온라인 무정전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내년 1월 이후 신규 설치하는 ESS 사업장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ESS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사업장은 현장 정기검사와 온라인 무정전 정기검사를 1년(또는 2년) 주기로 교차 신청할 수 있다.

최초, ESS 온라인 무정전 정기검사의 신청은 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개월 간의 ESS 통합관리시스템 접속률이 90% 이상일 경우 전기안전여기로 홈페이지(safety.kesco.or.kr)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ESS 통합관리시스템.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ESS 설비의 운영정보가 일정기간 동안 1분마다 1회 누락 없이 전송되면 접속률 100%로 선정된다.

'ESS 온라인 무정전 정기검사'는 KESC(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에 따라 ESS 설비의 운영정보 및 이벤트 조치내역 등을 종합 분석하여 판정한다. 검사 확인증은 전기안전여기로부터 출력할 수 있다.

온라인 무정전 정기검사 시행에 따

라 현장 위주의 ESS 안전관리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ESS 사업장의 부담 또한 완화될 전망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은 "사람 중심에서 디지털체계로 전환되는 ESS 온라인 무정전 정기검사를 통해 ESS 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 박병철 제2대 한국노총 전주시지부 의장 당선

한국노총 전주시지부는 13일 노총 전북지역본부에서 72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대 의장선거를 실시했다.

이 선거에서 박병철(NH전북농협 노

동조합 위원장) 후보는 단독으로 추대돼 96.4%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박병철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더욱 강한 노총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노총, 단위사업장과 조합원을 한 번 더

챙기는 노총 서로 우애하고 배려하며 하나 되는 노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노총의 역할을 강화하고, 노총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

## 흙토람 제공 토양적성도 확대

### 농진청, 재배 수요 많은 고사리·소면적 작물 33종 추가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이 작물을 선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재배 수요가 많은 고사리와 소면적 작물 33종의 토양적성도를 15일부터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soilrda.gokr)에서 제공한다.

작물별 토양적성도는 농경지 특성에 따른 작물의 적성 등급을 나눠 지도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흙토람에서 제공하던 작물별 토양적성도는 과수류 11종, 과채류 10종, 일·출기채소류(경엽채류) 11종 등 모두 66종이다.

이번에 산채류에 고사리 1종과 유사작물군으로 분류된 소면적 작물 33종이 추가되면서 모두 100작물의 토양적성도를 제공하게 됐다.

소면적 작물 33종은 기존 66작물이 가진 5개 요인(생태형, 월동 여부, 생

리 특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 추가했다.

농촌진흥청은 내년까지 농가 수요가 많은 100여 작물을 대상으로 유사작물 연구를 거쳐 토양적성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새로 제공되는 100작물의 토양적성도를 확인하려면 흙토람에 접속해 작물별 토양적성도 누르기 지면 입력, 지도의 축척을 1:2만17,084로 줄인 후 토양정보 누르기 입력(팝업) 페이지에서 작물별 토양적성정보 탭 누르기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현병근 과장은 "이번에 흙토람에서 제공하는 토양적성도 작물이 큰 폭으로 늘어나 다양한 작물을 토양적성에 맞게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